

“벼랑끝 지방 부동산 시장 맞춤형 부양책 없인 회복 불능”

광주·전남주택건설협회, 정부에 세제 지원·PF대출 개선 등 촉구
“수도권 회복 속 지방 침체 지속…갈수록 깊어진 양극화 해소 필요”

광주·전남 주택 업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맞춤형 부동산 부양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 주택 수요 급감이 겹치며 지방 주택시장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세제·금융·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2일 보도자

료를 내고 “수도권은 ‘뚝뚝한 한 채’ 선호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반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주택·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협회는 지방 주택시장이 인구 구조적 감소와 실물경제 장기 침체가 맞물려 단기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그나마 올해를 기점으로 일부 반등의 여

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는 주택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완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 경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의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가능성 등을 긍정적 변수로 꼽았다.
이같은 요인이 맞물린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전남 주택 시장에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협회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에 지방 마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계대출 규제의 탄력적 운용, 주택

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구조 개선, 공공택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방식 개선,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자금 확대와 이자율 인상 유예 등을 지원 정책으로 제안했다.
협회는 특히 민간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개정 이후 감정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민간 건설 임대아파트의 사업성이 크게 약화해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또 광주·전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최근 급부상한 광주·전

남도 행정 통합 시대에 대비한 구도심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지역 주택 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왔으나, 지금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도 올해 ‘하자제로’와 안전 최우선을 지향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건설사·타 지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 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색다른 출판기념회…기업 부스에 시민들 발길 몰렸다

강기정 출판기념회 신선한 시도
유망기술기업 6개사 팝업스토어
로봇 안내·닥터케어 체험 등 눈길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1일 열린 강기정 시장 출판기념회장에서 통상적인 정치행사장 풍경과 달리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부스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역 유망 스타트업들이 자사 제품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가 열렸기 때문이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판기념회를 기업 홍보와 제품 실증(테스트)의 장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출판기념회장에서는 광주시 등에서 지원받거나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망 기술기업 6개사가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술 시연과 체험 행사를 가졌다.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1일 열린 강기정 시장 출판기념회장에서 자율주행 무인로봇이 인파 사이를 이동하고 있다. <쉐어플랫 제공>

케어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선보여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옵토닉스’ 또한 제증제 및 체형 분석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넷온’은 얼굴 인식 및 자동 모자이크 기술이 적용된 AI 카메라를 통해 스포츠 관람 운영 효율화 기술을 시연했으며, ‘위치스’는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사람 얼굴에 캐릭터를 합성하는 이색 콘텐츠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참여 기업들은 이번 팝업스토어가 제품 홍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인 박람회와 달리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접할 수 있어 잠재 고객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세를 과시

하는 정치적 행사를 넘어,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참여 업체들의 설명이다.
행사를 찾은 한 시민은 “딱딱한 행사일 줄 알았는데 지역 기업들의 신기한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돕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소매·유통업체 “고물가에 소비쿠폰 종료 겹쳐 매출 절벽 우려”

1분기 경기전망지수 10% 하락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올 1분기 경기 전망을 이전 분기보다 낮게 예상하고 경기 침체 지속을 우려했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에 따르면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82를 기록하며 전분기(92)보다 10% 하락했다.
경기전망지수는 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지수가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경기전망지수는 2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광주상의는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겨울철 진입에 따른 비수기, 소비쿠폰 사용 종료 등 요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로 매출전망지수(84→76)는 동절기 유동 인구 감소와 교환율·고물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지속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반면 수익전망지수(80→87)는 다가오는 설 명절 특수에 따른 단기적 매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점은 인건비·공공요금 등 제반 운영 비용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광주상의는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명절 특수 기대감 유무에 따라 전망이 엇갈렸다.
대형마트(50→100)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세트와 제사 용품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되며 기준치를 회복했다. 백화점(100→100) 역시 명절 소비와 충성 고객층의 안정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보합세가 예상된다.
반면 편의점(94→71)은 겨울철 야외 활동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여력 축소로 체감 경기 악

화가 전망됐다. 슈퍼마켓(109→67)은 소비쿠폰 사용 종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고객 유입이 크게 줄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올해 1분기 경영활동의 가장 큰 현안과 애로사항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40.4%)’을 꼽았다. 인건비·금융·물류비 등 비용 부담(23.4%), 시장 경쟁 심화(12.8%), 상품 매입가 상승(8.5%), 고금리 지속(6.4%) 등이 뒤를 이었다.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소비쿠폰(지역화폐) 종료가 골목상권의 매출 절벽으로 직결되고 있음이 지표로 확인된 만큼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 47개사 대상 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대형마트 3개사, 백화점 2개사, 편의점 17개사, 슈퍼마켓 12개사, 전자상거래 13개사 등이 참여했다. /김해나 기자 khn@



롯데백화점 광주점 시즌오프 할인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바오바오 매장에서 고객이 핸드백 신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바오바오’는 2025년 F/W상품 시즌오프 행사와 함께 2026년 1월 신상품 제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 2025년 F/W 상품은 20% 할인하며,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주택금융공사 “올해 보금자리론 20조원 공급”

지난해 목표치보다 16.2%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일 “올해 보금자리론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액 목표치를 20조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치(17조2500억원)보다 16.2%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목표치는 애초 23조원이었으나 6·27 대책 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경성성장을 내 범위에서 서민의 주거비용 절감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규모로 변경했다.
실제 공급액은 목표치보다 많은 18조6000억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 청년 가구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모기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올해 주택보증 공급액 목표치를 지난해(65조7000억원)보다 6.5% 낮은 61조4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주택연금 공급액 목표치도 지난해 22조9천억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12.7% 낮췄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624.79	(+38.47)
↑ 코스닥	949.81	(+1.89)
↑ 금리(국고채 3년)	2.980	(+0.038)
↑ 환율(US D)	1468.20	(+10.60) 〈오후 3시 55분 기준〉

1인당 가계대출 9700만원…역대 최대

작년 3분기 기준, 9분기 연속 증가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72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

대치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9332만원) 이후 9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9505만원)보다는 200만원 넘게 늘었다.
전체 차주 수는 2024년 4분기 말 1968만명에서 지난해 1분기 말 1971만명으로 증가한 뒤 2분기 말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3분기 말 다시 1968만명으로 줄었다.
2024년 4분기 말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차주 수는 2020년 4분기 말(1963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대출 잔액은 2024년 1분기 말(1852조8000억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말(1903조7000억원) 사상 처음 1900조원을 넘어선 뒤 3분기 말 1913조원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467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9337만원)와 30대 이하(7698만원)도 각각 역대 최대였다.
다만 60대 이상은 7675만원으로, 전 분기(7771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1인당 평균 비은행 대출의 경우 30대 이상은 3951만원, 40대는 4837만원, 50대는 4515만원, 60대 이상은 551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